

코레오그래피에 의한 공간해석의 전개와 시도

A study on Interpretations of Space through Choreography

김명주* / Kim, Myung-Ju

홍수미** / Hong, Su-Mi

임채진*** / Lim, Che-Zinn

Abstract

Space is comprised by the movements of human beings, and draws a complex locus within it. That form seems to be complex of movement around in all directions of space axis, and be ever-changing process as time goes by. Although Human are able to move uninhibitedly, the movements are restricted to a narrow sphere during locomotion. However, the pattern of these movements delineates a certain frame within the space, and provides not only visual effects but also relevance to movement itself. Also, critically dividing and organizing this sphere is what is realized into this tangible indoor space. This study recognized importance of human being as a core of making indoor space and brought out experimental approach on relationship human with space, and visually perceptual standpoint. And this presented the recent possibility of action and attitude though sight and walking by arranging space on the basis of modern artists' perception of human body.

키워드 : 코레오그래피, 공간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움직임¹⁾’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각적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주체로 하여 공간에 시간을 구체화 시키는 표현요소이기도 하다. 환경심리나 형태의 측면에서 볼 때 입체적 공간구성에 의하여 시간을 지각하는 것은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른 연속적 경험에 의한다. 공간이 주는 자극은 연속적인 시차로 전개하여 나가며 그 인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반응을 한다. 그러므로 공간의 경험은 연속적이다. 때문에, 시공간의 새로운 인식으로 인해 건축을 시간성 탐험으로, 실내공간을 공간 예술로 보던 전통적 묘사는 재평가되고 있다.

기디온은 르 코르뷔지에의 ‘국제연맹본부설계안(League of nations Palace)’에 대해 평가하길 ‘어느 한 시점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건물의 전체성에서 시공간의 새로운 개념이 발견된다.’²⁾고 했고, 미즈 반 데 로에의 ‘일리노이공대설계안(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도 ‘운동감, 시간의 차원이

파악된다.’³⁾고 했다. 기디온은 ‘새로운 건축적 방법의 시작은 통합된 시간적 성격이다,’라고 했으며, 케빈 린치는 고정된 환경으로 건축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r공간적 환경은 시간의 현재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인간화할 수 있다.’고 했다.⁴⁾

들뢰즈는 ‘세상은 압축된 시간과 공간을 통해 물결치는 중첩된 기복과 표면의 몸과 같다’고 묘사했으며, 라이프니츠는 움직임의 흔적 즉, 시간, 움직임, 공간의 중첩으로 사건과 역사의 현대적 관점들을 예상했다.⁵⁾ 결과적으로 시공간의 다양한 추론 방식의 인식변화와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회원, 바디샵 코리아 VMD 실장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디자인학박사

1)독일계 미국철학자 랑거(S.Langer)가 <무용에 대한 철학적 고찰,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말한 움직임(Movement)은 ‘어떠한 형식이나 체계에 의해서 단정적으로 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생생한 신체가 위어내는 직접적인 경험의 흐름으로서의 움직임’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2)Sie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525

3)Ibid, p.555

4)Kevin Lynch, what time is this place?, Massachusetts ; MIT Press, 1995, p.65

5)Gilles Deleuze, The Fold ; Leibniz and the Baroque,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0, back cover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의 다양한 추론방식의 변화와 그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특히, 이 가운데 신체인식을 통해 추론된 공간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의 개념을 파악하고 공간의 해석방법으로서의 접근방법과 적용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통해 실내공간에서의 코레오그래피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코레오그래피의 의미와 영역

코레오그래피⁶⁾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코레아(Chorea: 합창무용)와 그라피아(Graphia:쓰기)의 합성어이며, 글자 그대로 해석 하자면 집단 무용의 기록을 암시하지만 사실은 몸짓을 구상한다는 뜻이다.⁷⁾ 오늘날에는 무용이나 발레를 구성하는 예술 묘사에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은 항상 감정 표현의 매개가 되어왔고 내적 특성을 표현한다. 더욱이 춤(인간의 동작)은 움직임을 통하여 제시되는 감정적 및 지적 리듬 형식의 연장으로서 다양한 형식의 코레오그래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인체의 움직임을 추론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1> 무용수의 움직임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장(場)의 공간

대체적으로 공간이란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며 움직임이란 공간내의 존재와는 별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움직임보다는 공간의 형태쪽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있다. 그러나 무용가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또 다른 감각을 갖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움직임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의 본질적인 내형이 된다.

이들의 신체적 움직임은 지각감정의 표현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곧 그런 맥락을 갖는 움직임이 된다. 인간이 느끼는 지각은 신체내의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신체의 조직이며, 표현적인 움직임은 감정을 동반하는 움직임이 아니다. 즉

6)옥스포트사전에 의하면 코레오그래피란 무용가 R.Feuillet(1675~b 1710)와 P.Beauchamp(1636~1705)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발' 움직임에 관한 도표적 상징을 일컬었음을 밝히고 있다(Choreographis:1700년경).

7)안윤희, choreography의 역사적 변모에 대한 고찰, 이화여대 석론, 1990.

감정적으로 표현적이라 인식하는 움직임의 특정한 조직 혹은 패턴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움직임은 공간속에 복잡한 궤적을 그리며 동시에 공간상에서 어떤 구도를 그려내는 것으로 시각적인 효과에 움직임 자체의 전달의미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을 움직임의 코레오그래피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코레오그래피의 공간적 접근

3.1. 이론적 배경

움직임이 나타내는 공간은 언제나 같은 방법론으로 디자인 된 것은 아니며, 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요인이 공간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을 전체적인 지각이미지로 통합된 수많은 개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시간적 결과라고 설명하는 아른 하임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인지적 과정에서 지각은 간접적이고 중재된 과정으로 보는 계슈탈트적 관점이다. 이와는 달리 자극정보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의 과정으로 보는 김슨의 관점이 있는데 감각적 자료에 대한 김슨의 접근 방법에는 공간디자인에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는 널리 알려진 다섯 가지 감각을 훨씬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김슨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대신 시각적 체계, 청각적 체계, 미각·후각적 체계, 기초 방향체계, 촉각적 체계로 구분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시한번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기초 방향체계와 촉각적체계로 이중 기초 방향체계는 지면의 수평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수직적인 자세에 기초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방향성이 대칭적인 균형을 추구하게 하여, 항상 우리의 감각 능력을 그 쪽으로 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슈탈트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김슨의 모형에서 그것은 무의식적이며 추론할 수 없다는 것에서 다르다.

두 번째로 촉각적 체계는 단순히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감각으로-온도, 통증, 압력, 운동지각(신체의 감각과 근육의 움직임)등-만지는 감각이 확장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말 그대로 인간이 환경을 접촉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촉각적 지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성은 신체의 자세와 근육운동과 같은 운동 지각적 감각이다. 촉각적 체계는 공간디자인에 있어, 특히 신체 움직임이 상호작용과 이에 상응하는 공간의 둘러싸임이 강렬한 곳에서 운동 지각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무용수는 공간을 무엇보다 더 촉각적으로 접할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의 원천지로서의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3.2. 코레오그래피의 공간설치

블특정 다수의 사람과 실내공간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것이다. 사실, 어떤 사람이 중심을 느끼는 것은 움직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공간적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중심에 대한 연상이 있어야 한다. 몸을 길게하고 위쪽으로 뻗는 것, 또는 몸을 땅으로 밀착시키는 것 등은 확실한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 로버트 유델(Robert J. Yudell)은 「신체, 기억, 건축」에서 이러한 상징적인 특성을 말하였으며, '수직적 축이 인생의 순환과정에서 변화하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건물은 움직임을 무대가 될 수 있으며 공간과 인간의 육체사이의 교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⁸⁾

이러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몸'은 수 없이 많은 객체(Object)가 아니다. 그것은 이 세계로 속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그러한 일을 마주하고 있는 '표정'인 것이다. '몸'이 만들어 내는 공간성(Spatiality)은 기하학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이루어지는 상태(Situation)이며, 세계에 대한 방향설정(Orientation)으로 이야기 될 수 있다.

또한, 신체와 외부공간 사이에서 중심이란 기하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근육기관의 지맥을 가진 근육구성에 관한 개념이며 장력에 대응하는 방향성의 개념이기도 하고 더욱이 감정 혹은 내부감각기관의 개념이기도 하다. 공간에 놓인 신체를 보면 기하학적 추상이라든지 기술이 갖는 의미를 연상하게 된다. 무용을 도형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면과 수직과 수평의 3개의 면에서 움직임을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수직과 수평의 차원을 보면 건축적 공간에서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이렇듯 직립하고 있는 자세는 수직축의 요소이기도 하며 상징이기도 하다. 공간과 인간의 영역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더욱 이들의 특성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체는 이 양극의 통합과 융합을 위한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다. 상(上)과 공(空)은 신성하며 정신적이며 영묘하며 맑고 희박하며 넓고 그리고 하늘이 된다. 하(下)와 대지(大地)는 물질적이고 광물적, 어둡고 밀실이 되며 확고하여 동굴이 된다. 즉, 위(上)에 비유하는 움직임은 성장, 동경, 도달의 비유로써 해석할 수 있으며, 아래(下)의 움직임은 흡수, 침투, 압축의 이유로써 설명할 수 있다. 아래의 이미지는 대지에 관하여 연상되고 재생이나 사후의 세계가 공과 관련 지어져 있으므로 수직축은 생활의 사이클에 의한 변천이라는 생각과 긴밀하게 결부된다. 반대로 수평면의 움직임은 이 사이클을 갖는 지상의 무대와만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이 평면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4. 코레오그래피개념의 전개 및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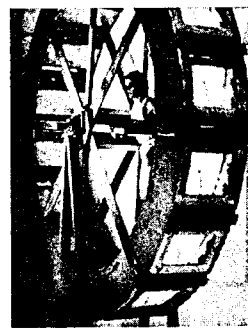
8)The Interior Dimension, J.M. Malnar, F. Vodvarka, 1996, p.365

1973년 벨기에 코레오그래퍼(Choreographer, 안무연출가) 플라망(Frdric Flamand)⁹⁾은 이미 변화하는 무용의 다양한 다른 예술형태(Art form) 즉, 실질적 건축의 발전된 아이디어를 준비했다. 그는 기존방식과는 다른 자유로운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연출하고 실험에 의한 새로운 무용의 접근을 시도했다. 적극적인 코레오그래피 실제의 설정과 함께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휴먼바디와 테크놀로지의 연결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발전은 거대한 스케일로서 코레오그래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환해 주었고 코레오그래퍼는 휴먼바디의 현상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와 공동 작업한 건축가들의 작품을 분석하여 움직임을 반영한 공간연출의 다양한 실험내용의 전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4.1. 공간의 유동성과 코레오그래피

코레오그래피는 무용과 실내공간, 건축 사이의 관계에 연속적인 호기심이 발생시킨다. 2000년에 플라망은 학문의 틀을 벗어날 때 또 다른 창조적인 활동을 도모하는 자하 하디드와 '메트로폴리스(Metapolis)' 작업을 위해 협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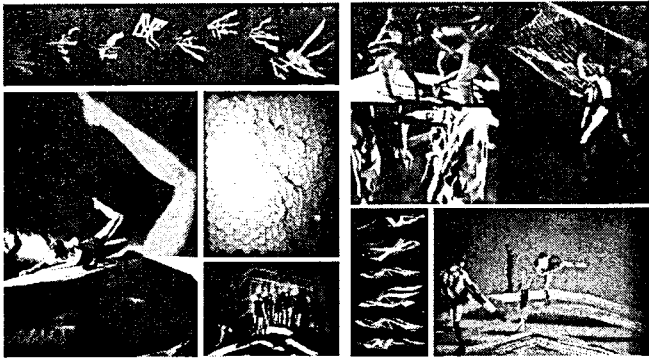
<그림 2> 플라망과 하디드의 '회전'

하디드의 작업을 살펴보면, 플라망은 힘의 선(lines)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무용의 움직임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눈 반면, 하디드는 전통적인 건축에 관련되지 않은 그녀의 디자인을 현실화의 가능성으로서 그렸다. 프로젝트 '회전(Propelling)'은 아라비아 캘리그래피 (Arabic calligraphy)¹⁰⁾와 이러한 가능성을 담은 그녀의 초기의 스케치에 있다.

그리고 그 표현방식은 그녀의 초기 스케치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플라망은 그 자신의 코레오그래피 발상을 하디드의 스케치 '동성과 유동성(the dynamic and fluidity)'과 비교한다.¹¹⁾

서로에게 영감을 주어 공간 자체가 춤추는 듯한 퍼포먼스를 제작하였다. 무용동작(motion)에서 무용수는 '도시(the city)'로 형상화되었고 '도시'는 무용동작에서 무용수가 되었다. 이러한 미래적인 도시의 비전은 유동성과 파열, 개인과 군중, 움직임과 관성, 질서와 혼돈과 같은 반대적인 것으로써 구성된 유토피아의 청사진을 그렸다.

9)플라망은 파브리치오 플레시(Fabrizio Plessi)와 세번의 퍼포먼스를 공동작업했고 여러 이태리화가와 판화, 드로잉, 사진작업과 비디오, 설치 미술을 같이 작업했던 안무가로서 다양한 예술형태의 접근을 시도했다.
10)언어의 연상작용과 그림의 연시운동의 경향을 강하게 표현하는 형식으로 몸이 움직임을 즉각적이고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표현방법이다.
11)Frame, 2001, no.23, pp.6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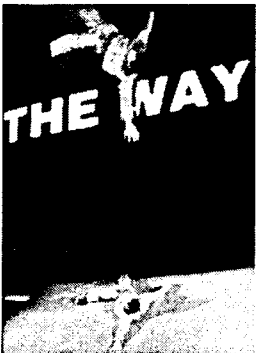


<그림 3> 무용수 움직임의 스케치 <그림 4> 지하하디드의 '메트로폴리스'

지지대(Props)들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고 결합할 수 있는 3개의 알루미늄과 유리섬유 아치로 구성되어있다. 무용수는 이 구조물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움직여질 수 있다. 관중들은 '블루스크린'¹²⁾ 덕분에 도시의 한 부분이 된 무용수와 무용수의 복장이 도시의 요소로써 병치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코레오그래피와 함께 이들의 효과는 장엄한 쇼를 만들고 그 쇼는 무용의 스텝, 지지대, 조명 등으로 나눈 것보다 전체로써 마치 진짜 도시와 같은 최고의 경험을 보여준다.

자하 하디드에 의해서 연출된 '메트로폴리스'는 공간 자체가 움직임을 갖는 공연이며 그 디자인은 주름상자(사진기 등) 모양으로 한장의 종이를 자르고 접는 원리에 기초하였다.

4.2. 디지털 이미지와 코레오그래피



<그림 5> 플라망과 누벨의 '바디워크'

최근 플라망의 장 누벨과의 협동 작업은 2000년 하노버 엑스포에서 발표된 '바디워크(Body/Work)'였다. 이 개최장소는 퍼포먼스에 익숙한 것을 필요로 하지않는 관객들에게 이점을 더하여 주었다. 플라망과 누벨에 의해서 발전된 이 개념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와 아직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이미 디지털화 된 것과 아직 디지털화 되지않은 것)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융통성 있고 보다 합리적인 환경 즉, 컴퓨터화 되고 글로벌화 된 작업환경의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적인 요소를 표현하였다.

작업환경을 묘사하는 40개 이상의 장면은 2개의 다층 무대에서 표현되었으며, 동시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에 둘러 쌓인 관객들은 가운데에 서서 미래 작업장의 이미지들과 무용수의 몸을 겹쳐놓은 블루스크린을 통하여 움직여지는 과정을 즐기게된

다. 각각의 관객의 위치는 그들이 보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의 몸과 작업의 관계를 다루었던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또 다른 주제의 프로젝트 즉, 인간의 몸과 휴식의 관계를 다루는 두 번째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주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 '우리는 휴식을 취하는 방법에서조차 표준화와 조직화를 피할 수 있는가? 지금의 정보산업은 휴양센터와 놀이동산의 급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끝없이 이어지는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대안으로써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했다.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코레오그래피는 공간을 연출하고 추론하는 방법으로 최근 작가들의 실험적인 접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와와의 결합으로 더욱 다이내믹한 공간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움직임은 하나의 이미지이며 기호이다. 무용의 주된 매체는 신체와 그 무용이 움직임이고, 신체가 만들어 내는 움직임은 체험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파악되는데, 랑거는 이러한 체험적 시각에서의 움직임의 형상을 보는 것은 '상호 작용하는 갖가지 역동적 이미지(Dynamic Image)의 나타냄(Appearance) 이다.'라고 말한다. 즉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역동성이 움직임에 대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히 손이나 발의 움직임으로서가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서 체득되는 체험의 양상이 바로 움직임인 것이다.

요컨대, 시공간의 분석 대안의 하나로서 인간의 움직임은 그것이 갖는 공간성과 함께 순차적으로 변하는 시간적 순환을 표현하는 코드화 단서이며, 공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공간요소가 된다. 디자인 접근에 있어서 움직임이미지의 구현은 공간의 3차원적 매체라는 속성자체를 표현하는 과정이라 보여진다. 움직임은 공간 디자인 요소로서 다양한 가능성의 인자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장세연·이성훈, 근대 건축공간에서 시공간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권 제3호, 2001
2. S.Langer, 김윤수역, 무용에 대한 철학적 고찰, 예술이란 무엇인가?, 보진각, 1984
3. 안윤희, choreography의 역사적 변모에 대한 고찰, 이화여대 석론, 1990
4. 김광현, 건축과 운동, 이상건축, 2000
5. 오영근, 건축.감성디자인의 언어 인간척도론, 시공문화사, 2002
6. 정해출, 현대 건축공간의 체험적 움직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론, 1997
7. 김광현, 건축지각형태의 분석방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710
8. David best, 움직임과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 현대미술사, 1995
9. The Interior Dimension, J.M. Malnar, F. Vodvarka, 1996
10. Frame, 2001, no.23

12)'Blue screen Technique'이란 무용수의 움직임과 도시의 이미지 병치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